

한복 교재 분석을 통한 성인 여자 저고리의 패턴제작에 대한 소고

이영혜* · 강순제

가톨릭대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가톨릭대 의류학과 교수

우리 민족의 고유 의복인 한복은 민족의 의생활 정서를 그대로 담아낸 우리의 전통 복식으로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상복이라기보다 예복 및 행사용 의복으로 입혀지고 있다. 이처럼 한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착용 빈도가 줄기는 하였으나 과거 경험과 눈대중에 의했던 한복제작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실제로 한복구성을 위해 출간된 교재들은 최근까지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겸한 패턴 제시와 함께 자세한 바느질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어, 우리 옷의 구성에 문외한이던 학생들에게도 좋은 안내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한복 패턴 제도법에 의해 제작된 성인 여자 저고리는 착의 실습에서 나타나는 부위별 만족도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르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한복 교재들이 여자 저고리를 제도할 때에 참고치수를 대, 중, 소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부위에 해당하는 치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각 부위의 치수 산정 방법 또한 대, 중, 소 모두 동일하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성인 여자 저고리의 경우를 보면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뒤편(앞품), 진동, 고대, 소매폭, 소매 부리의 치수가 각각 가슴둘레/2+3~4, 가슴둘레/4, 가슴둘레/10-0.5, 가슴둘레+3, 진동의 3/5 등으로 대, 중, 소 모두 공식화 된 제도법으로 되어 있고, 뒤편과 앞품을 모두 동일하게 잡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곧 장춘식에 의한 평면구성의 한복이라 하더라도 체형과 연령에 따른 체위 변화를 감안한 몇 단계의 원형 제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패턴은 다소의 무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예로 가슴둘레를 기준치수로 하는 저고리 패턴에서 대, 중, 소에 해당하는 표준 체형을 벗어나 가슴둘레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진동이나 고대의 치수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 또한 앞품과 뒤편을 동일하게 두는 것은 앞가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의하면 뒤편은 치수가 커서 뜨게 되고 앞품은 치수가 모자라서 조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또한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슴이 처지게 되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품과 길이에 여유분을 주어야 하며 가슴둘레와 앞가슴 크기와의 비례 관계, 상체가 앞으로 굽은 체형과 젖혀진 체형, 또는 좁거나 처진 체형, 몸에 비해 목이 굽거나 가는 체형 등이 함께 배려될 수 있다면 한복 제작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시행 착오는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복제작 방법을 담은 교재들의 분석을 통하여 성인 여자 저고리의 패턴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기존의 한복 패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인 여자 저고리 패턴과 치수가 제시된 교재 및 연구 논문을 채택하여 각 치수들을 표로 만들어 보고 패턴 작성법을 알아본다. 2003년 현재 실무에서 취하고 있는 치수도 함께 비교해 본다.

2. 패턴 유형과 기본 치수를 토대로 한 치수내기를 알아보고 각각의 공통점과 유사점, 차이점들을 비교해 본다.

3. 공식화 된 치수내기와 획일화된 패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형별 특징을 고려한 패턴 작성의 유의점을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여자 저고리 구성에 있어서도 체형과 연령에 따른 패턴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의 결과들이 실제 한복 교재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한다.